

National Organization for Women - Los Angeles

7351 West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46
(213)969-0534

The NOW works to bring women into full participation in the mainstream of American society, exercising all privileges and responsibilities in truly equal partnership with men. As a political organization, it promotes equal opportunity and equal rights through lobbying efforts, education and campus outreach, and through organizing major campaigns within the community.

Pacific Asian Women Writers West

1566 Curran St.
Los Angeles, CA 90026
(213)662-5102

PAWW-W fosters artistic development of women writers of color; promotes and preserves Pacific Asian American literature, history and arts; develops larger audiences for the artistic endeavors of Pacific Asian American women writers and encourages women to form writing organizations.

Women's Organization Reaching Koreans (W O R K) *

c/o Debbie Lim
4525 Wilshire Blvd., Suite 202
Los Angeles, CA 90010
(213)935-6555

WORK is a bilingual, bicultural, and multi-generational organization formed to identify and discuss the issues concerning Korean American women. Our goal is to provide a forum through which Korean American women can develop leadership skills, increase social awareness and participate in the political process. WORK will strive to become the voice of Korean American women on issues relating not only to women but also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n general. WORK will also serve as a vital link between the Korean community and all other ethnic and mainstream communities.

Women's Yellow Pages

P.O. Box 66093
Los Angeles, CA 90066
(213)398-5761

The Women's Yellow Pages annually publishes a directory of women-owned businesses, professional women and women's organizations in Los Angeles and Orange Counties. It also includes a comprehensive "Survival Guide" to community services and agencies, a guide to "Communication with Your Public Officials", a "Media Guide", and an equal opportunity employer's section guide.

Women of Colors (WOC)

P.O. Box 71111

Los Angeles, CA 90071-0171

(213)732-4237

WOC is a cross-cultural, multi-ethnic organization created to empower women of color through the promotion of leadership, education, cooperation and understanding.

* - Korean Speaking

The following articles were written by W O R K members
for the Korea Times Los Angeles Weekly Column "Women's Voice":

"Working Women" by Diana S. Kang

"Discrimination" by Yumi Jhang Park

"Career vs. Motherhood" by Stephanie Hyun Jung Seo

직장 주부여성

다이애너 · 강

한인여성으로서 미국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보면 애로점이 많다. 직장에서는 다른 미국인 동료들과 어울려 경쟁하고 모든일에 적극적으로 나서 야상사로부터 인정을 받고 진급도 한다. 특히 직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적인 태도·언어·행동은 전통적인 한국 여성의 이미지와는 대조적인 점이 많다.

그러다가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정반대로 「현모양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항상 언어와 행동에 신경을 써야하고 주위 사람들 눈에 거슬리지 않도록 나서지 말아야 하며 전통적인 아내·며느리·역할을 하느라 노력해야 한다.

주말내내 한국식으로 생활하다가 월요일에 직장에 나오면 행동이 어색하며 다시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계속 이중생활을 하다보면 혼동이 되어 「나」라는 사람은 정말로 누구인가 하고 의문이 갈때도 있다.

이런 이중 문화 속에서 직장생활을 할 때 가장 난처한 점은 출장을 가야하는 때이다. 주위에서 빠짐없이 「어떻게 남편과 살림을 제쳐놓고 출장을 가느냐, 남편은 그동안 무엇을 먹고 사느냐」 등등의 질문과 함께 야속한 눈초리고 나를 볼 때마다 무척 당황스럽다.

그러나 남편이 나를 두고 출장을 가면 모두 당연한 일처럼 생각한다. 물론 지금까지도 여자는 「안사람」 남자는 「바깥사람」으로 불려오듯 한국사람들은 아직 직장여성에 대한 개념이 뚜렷하지 못한 것 같다. 그렇지만 이제 부터라도 한국의 직장여성들이 당하고 있는 애로점들을 이해해하며 이중문화 속에서 적응하려는 여성들을 진심으로 격려해주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다.

차별대우

장 유 미

미국에 온지 얼마 안된 나는 취직을 하기 위해 신문을 들춰이던중 한국일보 구인광고란에 재미있는 광고문을 보았다. 「여사무원 모집」이란 제목 밑에 이력서에 사진을 첨부하여 보내라고 되어 있었다. 내용을 읽어보니 꼭 여자사원이 아니더라도 무관한 업직이었고 모델이나 배우를 뽑는것도 아닌데 사진을 첨부하라는 것이 우스웠다.

광고를 보는 순간 남녀 차별을 역력히 나타내는 광고라는 생각에 화가나기도 했지만 회사가 한국유명 대기업지사라 흥미가 있었던 나는 응모해 보기로 했다. 내 이력서에 연예인 마도나나 브룩셀즈의 사진을 잡지에서 오려 붙여 보내볼까하다가 사진을 동봉안한채 그냥 보냈는데, 나의 사진이 없었던 덕(?)인지 인터뷰하러 오라는 연락이 왔다.

인터뷰하러갔던 나는 더욱 당황했었다. 전 직장에서의 임무나 업적, 일에 대한 특기등 프로페셔널한 질문은 하나도 없었고, 주로 가족사항및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한 질문만 계속 받았다. 결혼여부에서부터 시작, 나이(체중을 안 물어본게 다행이었다), 자녀계획, 남편의 직업및 보수... 이런 질문들로 인터뷰는 진행됐다.

남편의 보수와 나의 취직이 무슨 관계가 있냐는 나의 항의 비슷한 질문에 그분의 대답은 나의 보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알아야한다고 했다. 만일 남자가 인터뷰를 갔었다면 부인이 무엇을 하며 보수가 얼마인지 물어보았을까?

결국 난 면접에서 낙방하였고 얼마후에 미국회사에 취직하였다.

미국은 민주국가이지만 인종차별 때문에 항상 말이 많은 나라이다. 그러나 나는, 나를 차별대우하는 상대방이 백인이기 보다는 같은 민족인 한국남성들임을 자주 느낀다. 요즘 한국은 올림픽열기로 한창이다. 올림픽경기 자체가 풍요한게 아니라 그러한 세계적인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나라로 경제적인 발전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동안 눈부신 경제적인 발전을 거듭해온 우리나라이지만 만약 국민전체 인력의 반인 여성인력을 남녀차별없이 똑같이 인정해서 활용한다면 더욱더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커리어와 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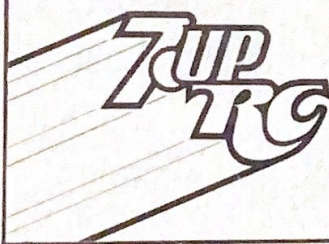
서현정

유치원때부터 여자아이들과의 소꿉놀이보다는 남자아이들과 어울려 전쟁놀이(대장노릇도 꽤 했었다) 하는 것을 즐겨했고, 국민학교,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팔방미인이었던 나였다. 그래서 그랬는지 아니면 미국에서 대학교육을 받아서 그랬는지, 또 아니면 딸만 셋인 집에서 항상 교육과 여성의 경제능력을 높이 사시는 진보적인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결혼을 안하거나 해도 나의 커리어는 꼭 가지고 있겠다고 항상 생각했었다.

그러던 내가 귀신에 홀린 것처럼 대학졸업과 동시에 결혼을 한것이 벌써 4년3개월전의 일이다. 그러나 결혼을 했다고 하여 어렸을때부터의 생각이 완전히 바뀐것은 아니었다. 결혼후에 대학원에 진학하여 MBA를 받았고 졸업과 함께 이름있는 미국공인회계 회사에 취직하여 회장에 부풀어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일을 하기 시작하자마자 아기를 갖게 되었다. 결혼하지 3년만의 일이었고 그동안 왜 아기를 갖지 않는다는 어른들의 걱정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아기는 낳기로 결정했다. 출산예정일이 임박해 올때까지 일을 했고 아기를 직접 키우는 것은 3개월이면 충분하고 그후에는 아기는 만 사람에게 맡기고 나는 직장으로 돌아가 내 커리어를 계속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막상 아기를 낳고 나자 그게 아니었다. 고물고물하고 나에게만 전적으로 의존하여 자라가는 아기와 지내다보니 모성애라는 본능이 작동한 것이었다. 아기가 3개월이 되었을 때 도저히 아기를 떼어놓고 직장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 생면부지인 사람에게 아기를 맡긴다는 것이 너무도 불안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엄마와 주부노릇만 하자니 공부한 것도 아깝고 내가 여태까지 믿고 있던 여성의 사회에서의, 직장에서의 지위와 권리 향상에 역행하는 것 같아 또 고민을 했다.

생각끝에 아기가 돌이될 때까지는 내가 직장을 쉬고 아기를 직접보기로 결정했다.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을 불적에 최상의 방법이라 생각되었던 것이다. 요즘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많아짐에 따라 나와같은 고민을 하는 여성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 어떤 사람은 출산직후 직장으로 돌아가고 어떤사람은 나처럼 집에 남아 아기를 돌보기로 결정한다. 그들의 여건이 어떠하며 어떤 결정을 내리든간에 최선을 다해 자신의 임무를 다해 간다면 그것으로 족한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Special thanks to the 7-UP/Royal
Crown Bottling Companies and
the Westinghouse Foundation for
making this directory possible.*